

제42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5 호
(정기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2일(수)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우주항공청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과학기술진흥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원자력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상정된 안건

-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
-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 2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우주항공청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 과학기술진흥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원자력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26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인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조인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616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7억 4500만 원 순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223억 7600만 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840

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0억 9400만 원을 순증,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는 13억 9000만 원 순증, 우편사업특별회계는 4억 3100만 원 순증,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8억 700만 원 순증,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6억 5000만 원 순증,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5억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356억 5500만 원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은 575억 3200만 원 순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양자기술 성능시험 환경 구축사업은 양자기술 성능시험 환경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47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AI 기반 공간 컴퓨팅 산업 육성은 산업현장, 병원 등 특수 목적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공간 컴퓨팅 서비스 선도 개발에 필요한 핵심 사업이므로 130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에서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 해킹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예산 40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학원 우수 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14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은 기획 부실 사업 감액 등을 통해 97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수인재 확보 및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의 신속한 구축 등을 위하여 18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협업지능 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은 퍼지컬AI 핵심기술 동시개발이 필수적이므로 기술실증을 위한 최소한의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은 초기 단계로 잠재력 높은 글로벌 퍼지컬AI 시장 선점을 위하여 고신뢰성 데이터·물리지능 행동모델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 4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은 출산·육아와 연구 성장 시기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여 연구·인력 공백 없는 R&D 현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76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은 AI, 차세대통신, ICT융합 등 ICT 유망 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원활하게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94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은 최고급 인력인 BoB 수준의 인력 양성 확대와 신종 사이버 위협 발생에 대응하는 인재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1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438억 1400만 원을 증액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0억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75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608억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 개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진흥정책국이 신설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 2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 18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방송콘텐츠 AI제작 혁신기반 조성은 방송제작 전 단계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16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소상공인의 지역방송을 통한 홈쇼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157억 5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둘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미디어교육 및 인프라 구축·운영의 유지를 위해 123억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16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인천공항 등에 방사능감시기 8대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9억 7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은 2026년 신규 개소 예정인 한빛권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방재장비구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주항공 지역혁신 기반구축 사업은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산업 육성 추진 및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190억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

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누리호 1회 추가 발사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AI드론용 디지털트윈 인프라개발 사업은 AI드론의 안정성·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국내 AI-드론 데이터 주권·표준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 40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4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2024회계연도 경영지표도 악화된 상황이므로 중장기적 경영개선 방안과 성장성 제고 전략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2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형적 성장과 수익구조 개선 기반을 토대로 교육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재무적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1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당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오늘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미통위 관련한 예산 일부가 여야 간에 합의가 좀 덜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17일 전체회의가 열리게 돼서 그때 다시 협의와 조율을 거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BS 결산, EBS 결산,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원안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의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몇 분 정도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간사님 5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간사님도 5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진흥해야 되고 또 지금 굉장히 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부 재원을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진흥에 사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야 위원들께서 증액 요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당초에 제출했던 것보다 아마 1조 정도 이상의

증액안으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는 감액할 수 있는 것만 있고 증액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동의 없이는 안 되는 문제인데 특히 각 상임위별로도 이게 크게 보면 실링과 바텀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 과기부 예산 중에 여러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 부분 한 1000억 정도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을 저희 당 위원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전체 과기부 예산안 토론이 지체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의견만 분명히 하고 전체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면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각 지역과 또 특정한 과학기술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내놓은 증액안을 다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결산특위에도 지금 들어가서 아마 과방위에서는 유일하게 계수조정소위에도 참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디펜드하기 위해서도…… 정부 예산 중에, 특히 과기부 예산 중에 다른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1000억 부분의 AX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 간의 토론을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특히 AI 진흥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그걸 표결로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쟁점이 될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고르게 올려 놓으신 다른 여러 필수적인 증액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토론을 못 하지만 또 방미통위의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방송발전기금 법의 위배 또 방송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강구 이런 것을 요구하는 논의를 할 텐데 그건 17일 날 추후 논의 때 상세하게 왜 그런 이견이 있었는지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여러 재정으로 다 충원돼야겠지만, 그러나 GPU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PU 26만 장이 정부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한 5만 장 정도는 정부의 빠듯한 재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칠백수십조라는 막대한,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로 많이 강조되던 AI 예산은 한 10조 정도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과기정통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5조 정도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기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당 전체 차원에서도 과기부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원안위·우주항공청의 예산은 늘리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소비쿠폰이라든가 이렇게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방식의 현금성 지원은 상당히 감액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감액하고 최대한으로 늘리되 또 과학기술 예산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증액한 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 전체 예산편성 중에서 소비성 예산,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이런 예산은 감액을 해서라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액한 안을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3분만 하십니까?

○김현 위원 예산안 할 때 저희가 누락이 된 게 있어 가지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요.

1차관 사업 부분 중에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이 신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황정아 위원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술혁신 업적을 보유한 과학자·공학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서 자금심을 고취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획평가비하고 연구활동지원금으로 42억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젊은 과학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된 게 지금 대략 한 300억 원이……

지금 1차관님 안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1차관 있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김현 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대전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젊은 과학자들 내용을 반영해서 적극 지원키로 했는데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논의할 때 이 부분이 포함이 안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때 실무 검토 중이어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젊은 과학자 몇 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300명입니다.

○김현 위원 3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지원금까지는 나왔는데, 20억 해서 이걸 나왔는데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지금 누락이 됐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형두 간사님 동의하시면 300억을 더 포함시켜서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것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예, 그럼요.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나눈 이야기,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지원금 300억 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애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리더급 국가과학자만 고려를 했었는데요. 매년 20명 수준이었습니다. 추가로 젊은 과학자들 자금심 고취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300명 수준의 젊은 과학자 선발을 진행하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KBS 결산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EBS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방금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한 경미한 숫자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2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 동의 등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과기정통부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인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안위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조인철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공유센터 등 증액 의결해 주신 여러 사업이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수정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대의견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당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빈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 운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조인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주항공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처우개선과 2028년 누리호 7차 발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우주항공인력 양성과 지역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중요한 예산들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박장범** 존경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KBS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대의견 등 여러 가지 고견을 앞으로 KBS의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신료 통합징수에 따른 재정 개선 효과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KBS를 선보이고 더욱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면서 고품질 콘텐츠와 국민 통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산해 주신 EBS의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EBS 발전의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점검하고 개선하고 또 공사 정책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계 석학 관련 EBS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EBS는 공영교육방송사로서 국민교육 발전과 국민의 평생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구현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구성원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관련한 예산안 처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사정상 11시에 커다란 집회가 있고 그리고……

○**김현 위원** 국회가 아니고 국민의힘.

○**위원장 최민희** 세 분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표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 질의 준비를 해 오셨다고 아까부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기회드립니다.

이정현 위원님.

○**최형두 위원** 저희들은 정당 행사 관계로 이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래서 11시에 이석……

○**최형두 위원** 30분간 대기했어요. 빨리 안 하시고……

○김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되게 건강한 생산적인 대화를 하였어요.

○김현 위원 넓으신 아량으로……

○이정현 위원 시간은 무제한으로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김현 위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형두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현 위원 아이고가 빠져야지요, 죄송한 거는.

○위원장 최민희 7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미통위 소관 질의는 아니고요 과기부 소관 질의인데 오늘 꼭 말씀드릴 예산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관기관의 요청이 늦어져서 저희가 분석하는 작업도 좀 지연됐고 과방위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기부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5G의 통합 품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업은 AI 기반 개방형 5G-A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7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흥형 기지국 AI-RAN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인데 이게 K-AI와 엔비디아 간의 협력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 이 테스트베드는 기지국에 GPU를 접목해서 디바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퍼지컬 AI 등 실시간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반입니다.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5G 통신 관련 기술 개발 기간이 전 17개월에서 이후 12.3개월로 4.7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의 품질 수준 또한 이전의 64.1%에서 이후 86.4%로 22.3%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라도 증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제명 차관님 소관이니까 이 부분 좀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관, 구형채 차관님 소관 사업인데요,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 부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악티늄-225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악티늄-225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될 예정인 난치암 치료용 핵심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차폐 시설 공사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 등 시설 검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비 2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 이게 반영되지 않으면 난치암 치료제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억 원이고요.

그리고 아이오딘-123 역시 소아암 진단제 원료로서 현재 의학원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인 제품인데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생산 시스템 고도화 예산 20억 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09년에 구축된 원자력의학 종합정보시스템 그리고 내부망과 외부망 연계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여기에 필요한 유지보수 최신 기술 적용이 현재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의학원이 보유한 연구 및 임상 빅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변조·손실될 위험이 항상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정보보호관리 실태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혁채 차관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ISP 용역사업비 및 내·외부망 망 연계 그리고 자료 전송 시스템 고도화 비용 9억 7200만 원이 꼭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선 상해자 전담치료기관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방사선 상해자 전담치료기관, 비과과검사 등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운영 예산 18억 4700만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성자 포획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포 단위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정밀 치료 기술입니다. 중성자 포획치료, 외과적 수술이나 다른 방사선 치료로는 치료가 어려운 소아암과 뇌종양 그리고 두경부암, 폐암 간암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부작용도 적고.

현재에서는 세계적으로 중성자 포획치료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임상 실증연구를 통해서 암 정보 선도 기술 개발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꼭 필요한 치료 예산, 중성자 포획치료 임상 실증연구 예산 20억 원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방사선 의학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선제적인 투자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시설 관련 질의입니다.

이것은 과기부의 다른 기관들이라든지 또 공공기관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부총리께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2023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경사로나 또 장애인 화장실 등 법정 필수 장애 친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시설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장애인 여러분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예산이든지 찾아서 빨리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관련 예산이 25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뺐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차관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소위 때 논의해 주셔서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챙겨 주시고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도 꼭 반영이 돼서 내년 사업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시설 관련 예산들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챙겨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부총리께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로 의견……

노종면 위원님 하시고……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미통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위원장 최민희 아리랑국제방송 예산과 국악방송 예산 관련하여 문체부와 업무 조정·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실무자들이 계속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위원장 최민희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국악방송 지원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데 동의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기재부 쪽하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 문체부 물어봤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제가 조금 담당 국장님 쪽……

○위원장 최민희 담당자 누가 배석해 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문체부는 기본적인 입장은 자기들도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넘어가는 만큼 기재부에서 일반회계에 담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재부는 전체적인 예산가용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는,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이런……

○위원장 최민희 다시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전체 재원, 기금이나 일반회계 전체 차원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 말을……

안 하겠다 이 말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안 하겠다는 말보다는 확정을 못 해 주겠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위원장 최민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답답하네요.

지금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규제를 문체부가 합니다.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발전기금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방미통위는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지요. 일반회계로 예산을 보내든가 아니면 규제 권한을 방미통위가 가져와야 되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걸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일단 예산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안 받아들이는 상태가 몇 년 됐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명확히 합시다. 기재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정부예산 중의 하나고 일반회계도 정부예산 중의 하나니 ‘그냥 어디서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니야?’ 이런 입장이라는 뜻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게 비논리적이지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최민희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반상권 직무대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K-미디어 AI 전환 지원 예산 이게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소위에서 150억 원이 의결됐습니다. 방미통위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보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올해도 200억 원이 과기부 사업으로 집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보면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영상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인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공적 활용을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입된 200억 원의 예산은 공적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4개 컨소시엄에 지금……

○노종면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적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는 예산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방송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AI 시대의 방송사들도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렇지요?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투입될 때 혹시 방송사 컨소시엄하고 어떤 매칭의 조건들이 부과가 돼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담당……

○**노종면 위원** 과기부에서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투자하고 마는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진흥국장입니다.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몇 대 몇으로 되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사업자들과 관련 기관, 기업들과 해서 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따로……

○**노종면 위원** 아니, 예산 대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컨소시엄당 한 48억씩 지원이 되는 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노종면 위원** 매칭 기본적인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매칭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매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방송사 컨소시엄도 돈을 투자하고 국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공동사업이 지금 벌어지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노종면 위원** 나오신 김에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올해 150억 원이 책정이 되면 이걸 컨소시엄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내년도에……

○**노종면 위원** 제가 방미통위에서 작성한 이 문건을 보고 좀 놀랐어요. 올해 선정이 된 4개 컨소시엄 중에서는 2개를 선정해서 10억씩 지원을 하고 추가로 4개의 컨소시엄을 신규 선정해서 32억 5000씩 지원한다. 이게 방미통위 방안 맞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공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측면이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올해 4개 선정하고 여기 제가 보니까 종편이랑 SBS 등이 빠졌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렇게 나눠 주기를 하려는 건가? 도대체 기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배분 방식을 지금 방미통위가 가지고 있는데 논거가 뭔가 매우 궁금합니다. 특정 사에 몰아주기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주요 방송사들에게 나눠 주기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노종면 위원** 어떤 정책수단으로 공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 방안은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저희가 올해에 200억 갖고 하는 사업이 한 2만 시간 정도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영상 AI 생성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데 지금 컨소시엄별로 5000시간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첫해 사업이

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10만 시간 정도는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계속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앞으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래서 29년까지 저희가 정부지원으로 한 6만 시간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방송사 컨소시엄들이 결국은 다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겠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일단……

○노종면 위원 아니면 지원받은 방송사에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기준, 그 출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 컨소시엄당 5000시간씩 올해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 해당 방송사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우리는 5000시간 이미 다 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는 우리 한 5만 시간 있으니까 앞으로도 10년 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기존 사업자들은 추가로 더……

○노종면 위원 하기를 원하겠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종면 위원 이미 갖고 있는 기존 데이터들 양이 꽤 클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정부가 목표로 한 10만 시간이든 아니면 5만 시간이든 그 목표의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좋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노종면 위원 그런 의미에서 방송사들을 선별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복을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눠 주기식, 그냥 주요한 방송사에다가 돌려주는, 나눠 주는 그런 제도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한 가지만 더 따져 볼게요. 지금 4개 컨소시엄에 돈이 이미 투자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환 사업을. 보도가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포함됩니다.

○노종면 위원 우리나라 언론사, 방송사 보도 데이터들의 중복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그것은 사업자마다 데이터 구축하는 계획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 보도 데이터, 저도 방송사에 오래 근무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경우와 지식이 있다고 보는데 방송사 데이터들 보도와 관련돼서는 중복이 매우 심합니다. 국회 영상도 지금 KBS 기자님 게시지만 풀로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개별사별로 다 따로따로 하는데 국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데이터예요. 이런 중복에 대한 고민 없이 방송사별로 다 나눠 주면 예산 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다시 해 보시고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장겸 위원, 신성범 위원, 박충권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를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총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우주항공청 청장,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 속기 및 경호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주희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황정아

○출장 위원(1인)

한민수

○청가 위원(3인)

이준석 이해민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원 이재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인공지능정책실장 김정만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전과정책국장 오용수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서경춘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정책기획관 전영수
국제협력관 황성훈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윤경숙
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소프트웨어정책관직무대리 이상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곽병진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최준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이충원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한형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안전정책국장직무대리 장현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우주항공산업국장 한창현
우주수송부문장 박재성
인공위성부문장 김진희
우주과학탐사부문장 강경인
항공혁신부문장 김현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장범
경영본부장 정국진
경영관리국장 조재천
드라마센터장 김상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유열
디지털학교교육본부장 유규오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경영지원센터장 곽태규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4)

11월 7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3)

이상 5건 11월 10일 회부됨